

●●● 윤 호 식 장원동물병원 원장

HPAI 신속한 대응이 국내 양계업 살렸다



양계산업을 뒤흔들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지 1년이 다가왔다. 이미 겨울철로 접어들었고, 철새들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양계업계는 제2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본고는 지난해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처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질병확산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를 한 윤호식 장원동물병원장을 만나보았다.

◀윤호식 1986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1986 천호부화장 근무
1994 중원농장 근무
1998 장원동물병원 개원

설사와 폐사증가, 흑시(?)

2003년 12월 초 윤호식 원장은 거래처인 충북 음성의 한 종계장에서 닭의 증상이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닭 상태를 확인한 결과 겨울철 인데도 설사가 나타나고 폐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증상으로 여기고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폐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결국 47주령된 19,000수가 폐사하기에 이르렀다. 갑자기 많은 수가 폐

사했을 때는 환풍기나 급이기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윤원장은 예사상황이 아니라 여기고 12월 10일 곧바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를 하면서 가검물이 채취되어 검사에 들어갔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신속한 진단과 대응

이후 검역원에서는 가검물을 채취하여 진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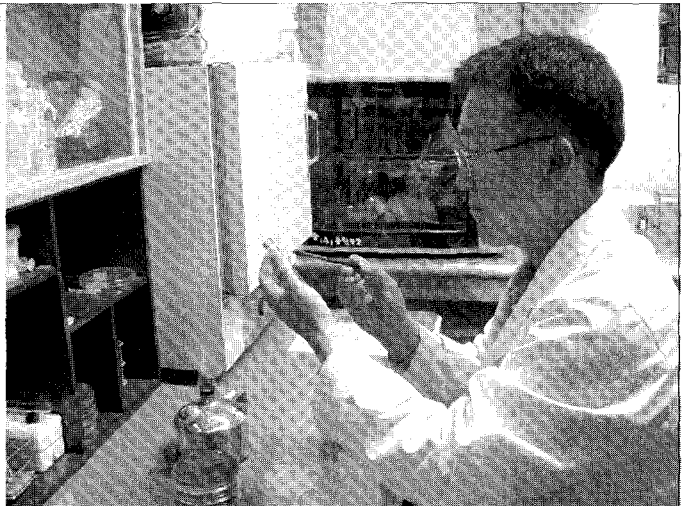
한 결과 신고일로부터 2일 후인 12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라는 사실을 알려왔고, 모든 가금류의 이동이 제한되었다.

윤원장은 당시 방역당국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HPAI의 확산을 막는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6년 약병원성 AI가 발생된 바 있고 몇 년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오리로부터 고병원성AI가 검출이 되면서 검사장비를 비치해 둔 것이 우리에게 큰 수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방역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1달 이상 이동제한에 묶여

윤원장도 닭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 발생이 이어지는 1달 이상 집박으로 꼼짝 할 수 없었으며, 동물병원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연일 보도되는 '조류독감'의 확산보도와 혐오식품으로의 방송은 윤원장의 마음을 짓눌렀다.

사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졌지만 피해 수의사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윤원장은 양계수의사들의 권익을 찾기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먹고 최근 양계수의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양계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 산하의 한 분야로서 양계수의사들의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잘못된 법규정 등에 대한 검토와 건의, 수의사들에 대한 권익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것은 결국 양계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양계인들의 이익과도 직결 될 수 있을



균 분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윤호식 원장(충남 천안 소재 보람 동물 병원)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HPAI 발생, 이제는 문제없어

윤원장은 만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일을 경험하였으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처하에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강조하였다. 문제는 질병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신속한 신고가 관건이며, 항상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됨을 거듭 강조하였다. 특히, 농가들은 평소보다 설사가 심하고 폐사가 늘어나면 HPAI를 의심하고 신고하는 정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에 HPAI가 조기에 잡힐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살처분 보상비가 따라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장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뉴캐슬병과 가금티푸스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이끌어 간다면 아마 질병근절이 지금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리 | 김동진 팀장) **양계**